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2월 10일)

전에 - 공문서 (보고) 상황

1. OT 진행상황 보고

2. 총여 예산을 올리는 문제에 관하여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 자치체의 검토

- 총여 5% 인상
- 여학생자치회 (음자권 - 여학생자치)
- 자치단체 협박: 자치단체 설명서

7. 인사위원회.
총여 예산위원회

3. 개강 첫 주에 선전할 것들

연세춘추

1) 방학 때 한 일들 - 자립학생자치, feminism cafe.

2) 자치단체 모이세요.

3) 집행부 모집 연세위원회 (총) 연세총회 학생자치

기획안

예산 5%

총학생회

4~5대

간담회 (우정)

현장, 현장

- 우리 사업 보고: 총무

4. 자료 학술국-이과대 여학생회가 운영하는 생활도서관의 노하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
균요. ② 도서관 검토

5. 확대운위 LT평가

8. 연세문화. 나을주

6. 수습위원

9. 연세문화. 총학생회에 맡김

7. 3/8 까지 연세문화 날

<1차구입도서목록>

그 많은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문학과 페미니즘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성의 변증법
성의 정치학
성적차이와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섹스북
여성 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이갈리아의 딸들
재생산의 비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즘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페미니즘 이론사전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페미니즘사상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 비평
여성해방의 정치학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강지현 기증.
반쪽이의 욕망일기.
성의 여성사-강지.
강간의 역사-~~한영~~ 나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과학과 젠더

권력과 매춘 ;

대중매체와 페미니즘

마돈나의 이중적 의미 *the other 기증*

'삶의 여성학' - *김영애 기증*

성과 미디어

성의 역사 1,2,3

세계여성사1,2,3

세계풍속사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여성과 범죄

여성과 혁명운동

여성의 지위

'여성학강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여성운동

<여성사>

변신과 가능성의 무대

페미니즘/영화/여성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언어와 여성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변화를 향한 비판적 교육

여성노동론

<이화여대출판부>

게오르그 짐멜: 여성문화와 남성문화

나의 몸, 나의 길: 성폭력의 예방과 극복

다시 꾸며보는 세상: 생태여성주의의 대두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세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현대여성해방사상

<또 하나의 문화>

1.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2.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 ✓

3.여성해방의 문학 ✓

4.지배문화, 남성문화 ✓

5.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

6.주부, 그 막힘과 트임 ✓

7.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

8.새로 쓰는 성 이야기 ✓

9.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

10.내가 살고 싶은 세상

11.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1

12.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2

13.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1

14.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2

우리 속에 있는 남신들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힘

김영애 기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01호
전화 02) 365-4016 팩스 02) 365-4017

Internet: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mss@peacenet.or.kr

문서번호 : 정대협 제 98 - 10호

1998년 2월 4일

수 신 : 정대협 실행위원, 회원단체, 연관단체

제 목 : 수요시위 300차 기념집회 참가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건강에 유의하시는지요.

저희 정대협에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월18일 수요일은 수요시위 300차입니다.

1992년 1월8일(수)을 시작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한 지 벌써 만 6년이 넘었습니다.

한 사안으로 6년넘게 시위를 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수요시위는 항의집회를 넘어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등), 시민들, 시민단체, 외국단체들간의 친교와
의견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시위는 치유와 연대의 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는 2월 18일 수요시위 300회기념집회를 맞이하여

정대협은 여러분들과 함께 축제의 마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300차 기념시위는 조금 더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가두시위와 문화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셔서 그동안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1998년 2월 18일(수) 11:30-1:30

◎ 장소: 변함없는 일본대사관 정문 앞과 가두시위, 탑골공원

◎ 준비: 국민기금을 반대하고 일본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피켓 2-3개

◎ 일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30-12:00 준비행사/ 풍물패와 함께 길놀이로 준비

12:00-12:30 본 행사 / 정대협이 주관하는 300차 특별집회

12:30- 1:00 가두시위/ 일본대사관 - 탑골공원까지

1:00- 1:30 마침행사/ 문화행사에 합류하고 마무리

12:00- 1:30 문화행사/ 탑골공원앞에서 사진전, 유품전, 문화행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운옥

총 무 양미강